

전 남

# 목포 삼학도 석탄부두 신항 이전

## 3만t급 1선석 254억 들여 2015년 준공 50만t 처리...첨단 하역 시스템 도입

27년 역사의 목포 삼학도 석탄부두가 목포신항으로 이전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국비 254억을 들여 삼학도 석탄부두를 목포신항으로 이전, 오는 2015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목포신항에 건설될 3만t급 1선석의 석탄부두는 민자를 유치해 연간 50만t 처리용량의 밀폐형 하역기, 동형 저탄장 등 최첨단 하역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부두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목포 삼학도에 소재한 석탄부두는 지난 1985년 준공돼 중국과 러

시아 등에서 연간 30만t의 물량을 받아 화물열차로 처리하면서 서민들의 에너지 공급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석탄부두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 걸림돌은 물론 석탄운반 철로 때문에 동명동 주민들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 삼학도 석탄부두 이전에 따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고통해결과 함께 현재 공정을 65%에 머물고 있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석탄부두가 목포신항으로 옮

겨지면 석탄부두 부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삼학도에 김대중노벨상 기념관을 비롯해 수변공간을 조성해 관광명소는 물론 시민 휴식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목포항만청 이재백 항만공사과장은 "당초 확보된 올해 사업비는 10억 원이나 석탄부두 이전공사를 앞당기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올해 집행가능한 추가 사업비(40억원)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외국인들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를 방문해 돌담길을 따라 걷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10년만에 확 바뀐 완도 관광·소득 두토끼 잡다

## 관광객 즐기고 전복산업 5000억 매출

최근 10여년 사이 완도가 탈바꿈하고 있다. 한적한 섬에 불과하던 완도 청산도에 매년 봄철이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전복 양식 등을 통해 어민들이 수억 원대의 연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민선 3, 4, 5기 동안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한 김중식 완도군수가 있다. 김군수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잘사는 완도! 행복한 완도!'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군정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결과 '건강의 섬', 천혜의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지면서 청산도 등 완도 관광명소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매년 봄이

면 상춘객들이 '가고 싶어하는 섬'으로 떠올랐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산도를 방문해 국내의 방문객은 110만5000여명에 달한다. 관광객이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등이다. 또한 청정해역을 이용한 전복양식은 지역어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완도전복은 국내 전복 생산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연 매출액이 현재 5000억 원대로 오는 2017년이면 1조 원을 넘어 단일 식품으로는 국내 최고의 매출액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 완도군 향우회 총연합회(회장 김행만)와 완도군 번영회

(회장 박경남) 등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김중식 군수에게 감사소감을 전했다. 이들은 "민선 3, 4, 5기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지역가치를 한층 드높이고, 2014 국제 해조류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소망한다"는 내용의 감사소감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김 군수의 공적비를 세우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끝냈다. 한편 김 군수는 ▲2009년 목민운동회(고급민번영회)·사랑의 내복(완도군 통발자물공동체)·감사패(군 건강향 지역사회 운영협의회) ▲2012년 목도리(완도 언론인연합회) 등 군민들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기자 노트

유달산과 삼학도에 이어 또 하나의 목포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목포대교 개통은 정종득 시장에게는 남다른 의미와 감회가 교차한다. 민선 3, 4, 5기를 거치 온 7년 재임기간과 그 궤적을 같이 해서다. 어쩌면 재임기간 동안 겪어 온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투영된 실목이자 기념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교가 개통되기까지 '정종득-박지원-임태희'로 연결되는 트리오의 공(功)은 목포시사(市史)에 길이 남을 것이다. 목포대교 개통은 물류관광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5기도 반란점을 뚫었다. 돌이켜 보면 교육·복지·관광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경관·복지 분야에서는 획기적이라는 평가까지 받는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



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는 데 의의가 없다. 시민단체 여론조사도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되레 후퇴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해마다 시 예산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민선시대 맹점 가운데 하나로

### 목포대교 개통의 의미

이 아니다. 대교가 개통되기까지 '정종득-박지원-임태희'로 연결되는 트리오의 공(功)은 목포시사(市史)에 길이 남을 것이다. 목포대교 개통은 물류관광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5기도 반란점을 뚫었다. 돌이켜 보면 교육·복지·관광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경관·복지 분야에서는 획기적이라는 평가까지 받는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꼽는다. 자립도가 낮아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경제효과 보다는 표를 의식한 사업이 선행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자체도 수익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민선 5기 후반기는 '향후 100년 목포는 밀 먹고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해답은 '바다'에 있다. 목포대교 개통을 계기로 목포시도 바다에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하기를 기대해 본다. /yousou@kwangju.co.kr

### 다솨동지 복지재단-한국농촌건축학회

##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단 발대식

다솨동지 복지재단(이사장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과 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 최명규 호남대 교수)는 29일 광주 광산구 호남대 광산캠퍼스 상하관에서 '2012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발대식'을 갖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상길 농식품부 제1차관,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비롯해 전국 22개 대학 건축관련분야 지도교수와 자원봉사 학생대표 등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전국 9개도의 농·어촌 취약계층 375가구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대학생,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임직원 등 27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6월부터 11월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다.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규모는 ▲2007년 37가구 ▲2008년 38가구 ▲2009년 113가구 ▲2010년 170가구 ▲2011년 309가구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소외 사업비는 한국사회 특별 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정부 보조와 농어촌공사 직원을 비롯한 다양한 개인 및 단체의 후원회비로 조달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민·관 협력과 폭넓은 자원 봉사자의 참여를 통한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매년 8월 고흥서 대중상 단편 영화제

대중상 단편 영화제가 매년 8월 고흥에서 열린다. 고흥군과 (사)대중상단편영화제작위원회(위원장 조근우)는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매년 고흥에서 '대중상 단편 영화제'를 개최하고, 행사 전반에 관한 준비와 각종 홍보·교통·안전 등 제반사항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세부 행사내용으로 유명 가수와 배우들이 펼치는 화려한 축하공연과 함께 오프닝 공연, 영화 작품 소개, 전시 및 체험 행사, 포토존 운영, 시

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대중상 단편 영화제는 오는 8월 14일부터 5일간 고흥 종합 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병중 군수는 "앞으로 대중상 단편 영화제가 고흥에서 매년 개최되면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역사와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군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면서, "영화제가 개최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고흥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 목포~제주 초고속 카페리 내달 25일 취항

## 5000t급 '퀵스타' 차량 200대 동시 선적

목포~제주간을 3시간에 주파하는 초고속 카페리인 '퀵스타'가 오는 7월 25일 취항한다. 씨월드 고속훼리(주)는 "국내 카페리 가운데 가장 빠르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초고속 카페리 '퀵스타'(5889t)가 시범 운항을 거쳐 본격 취항한다"고 28일 밝혔다. 씨월드 고속훼리(주)는 본격적인 취항에 앞서 다음달 7일부터 21일까지

시범 운항에 나선다. 주말 운항을 기준으로 9일 12회 시행하고, 25일부터 매일 오전 8시 운항한다. 카페리는 길이 113m, 최고속도 38노트에 여객정원 880명, 차량(승용차 기준) 200대를 동시 선적할 수 있다. 항공기 비즈니스급의 안락한 의자 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씨월드 고속훼리(주)는 본격적인 취항에 앞서 다음달 7일부터 21일까지

불릴 정도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관계자는 "정식 취항을 앞두고 국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 운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시범 운항을 하기로 했다"면서 "시범 운항 기간 특별 요금을 적용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목포~제주 항로에 2만 4000t급의 국내 최고, 최대의 호화 카페리 '씨스타쿠르즈'호를 띄우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화 / 제 / 집 / 중 / 안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2011 DAENEUNG's Best Seller

포켓 사이즈 MP3 무로다운 효율적 학습

알짜배기 여행회화 \*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 구성

한자능력검정 \* 시리즈 대한한자연구회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술문제의 성향, 학습성취도 평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영어백과

대신·인사·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직 기술문제 포시

알짜배기 고사영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